

북미 대학의 한국학 장서 평가에 관한 연구: A 대학을 중심으로*

A Study on Evaluation of Korean Collection of North America : Focused on the A University

오경묵(Kyung-Mook Oh)**

초 록

본 논문은 북미 대학에서 한국학 장서 구축의 역사가 오래된 대학을 대상으로 그동안 구축된 한국학 장서의 현황 규모에 대한 적정성을 현장을 중심으로 객관적으로 조사 분석한 것이다. 장서와 이용자 그룹에 근거하여 ACRL 표준공식을 적용하여 분석하였고, ARL 중앙값을 산출하여 비교하였다. ACRL 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이 대학의 한국학 장서는 B 등급으로 평가되었고, ARL 비교치 결과에서도 비교 대상교 15개 중에서 중간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한국학 장서의 꾸준한 증가를 통해 한국학 교육과정 지원을 보다 충실히 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게 되었다.

ABSTRACT

This paper evaluated the collection development of the Korean collection at the A university over the several decade. Compared against the ACRL standard Formula A, the result demonstrated that the Korean library collection is still needed to increase Korean collection to support Korean-related program and Korean community in the area. When we share western language materials in the library as the same area studies resources, we can evaluate Korean studies collection as Level B. Comparison with similar institutions (ARL comparisons) shows that the collection is the middle among 15 universities which provide Korean programs. The situation for Korean resources at the A university is needed to get more support from Korean institutes and Korean societies to keep up with the Korean collection for academics and regional community users as well.

키워드: 한국학 장서, 장서평가, ACRL 표준, ARL 비교값
Korean collection, collection evaluation, ACRL standard, formula A,
ARL comparisons

* 본 연구는 숙명여자대학교 2007년도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 숙명여대 인문학부 문헌정보학전공 교수(kmoh@sookmyung.ac.kr)

■ 논문접수일자: 2008년 11월 18일 ■ 최초심사일자: 2008년 11월 20일 ■ 게재확정일자: 2008년 12월 5일
■ 情報管理學會誌, 25(4): 269-281, 2008. [DOI:10.3743/KOSIM.2008.25.4.269]

1. 서론

대학도서관은 대학의 교육적 요구와 대학의 연구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충분한 장서와 시설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책임이다. 도서관 3요소로 건물, 인력, 장서를 들 수 있는데, 이중 서비스의 기반으로서 장서가 도서관의 가장 귀중한 자산이 될 수 있다. 도서관장서가 어느 수준 이하로 떨어져 있다면 도서관은 효과적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장서의 절대적인 규모가 기관의 인지된 품질과 관련된다는 증거는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하여 나타나 있는 바이다 (송영희 외 2008; Baker & Lancaster 1991).

미주 지역에서의 한국학 자료의 발전은 한국학 연구의 성장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북미 지역에서 한국학의 연구는 중국학과 일본학에 비해서 상당히 늦게 시작되었는데, 1950년대 한국학이 본격적으로 소개되기 이전에 해외에서 보는 한국은, 중국 문명의 변방에 지나지 않았으며 1910년 한일합방 후 당시 일본제국의 한 영토로서의 부속 국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그 당시의 한국학 관련자들의 시각이었다. 하지만 한국전쟁으로 인해 한반도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시작되었고, 1960년 이후 미국과 정치, 경제적 교류가 늘어나고, 이어서 한국이 경제적 성장을 이루게 되어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사회에 진출하게 됨에 따라 중요한 국가로 인식하게 되었다(최형근 2005).

요즈음은 전자정보원에 접근이 보다 편리해지고 있기 때문에 장서의 규모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상대적으로 덜 적절해 보일 수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훌륭하고 다양한 장서를 구축

하는 것은 특히 해외 한국학 도서관의 입장에 서는 더욱이 중요하고 절실한 문제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1960년대 한국학 장서가 구축된 이래 최근까지 장서구성 실태에 대한 실질적 평가이다. 지난 50여년 동안 A 대학 장서는 꾸준히 발전되어 대학 구성원과 지역사회 한인 커뮤니티에 봉사가 되어왔으나 객관적 기준에 따른 평가는 이루어 지지 않았었다. 따라서 그동안 구축한 장서가 북미 대학의 기준으로 볼 때 적절한지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어 해당 도서관의 협조와 지원을 바탕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본 연구를 위해 제시된 보유장서에는 전자자료 및 비책자자료도 자료의 한 형태로 간주되어 ACRL(Association of College & Research Libraries) 공식을 적용하기 위하여 장서로 변환하여 평가하였다.

2. A 대학에서의 한국학 연구

일반적으로 북미지역에서 한국학도서관의 자료 구입과 예산의 책정은 각 대학에서 해당 지역학을 전공하는 교수, 개설강좌 그리고 이에 따른 석, 박사 학생 숫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국학 자료 구입에 대한 예산 배정은 대체로 한국학 관련 교수와 이들이 개설한 과목, 그리고 이를 선택하여 수강하는 학생 수가 기본적으로 반영된다.

A 대학의 경우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한국어 교육과정이 1985년에 한국에서 교환교수를 초청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정규 프로그램은 그 다음해 중국과 한국의 동양철학사상을 연구하는 교수의 주관 하에 설치되었고, 1989년까

지 이 대학은 한국 불교, 한국 문학, 한국 근·현대사 분야에 정년트랙 교수를 채용하였고 한국어 교육분야에 전임강사를 한명 초빙하였다.

한국과 중국 불교 분야 권위자인 미국인 교수의 리더십에 의해 1990년대에는 꾸준히 발전해 왔는데 문화인류학, 사회보장, 사회학, 현대 한국역사, 풍속, 언어학, 예술사 분야에 정년트랙 교수를 지속적으로 채용하였다. 2001년에 현재 한국학 센터소장을 맡고 있는 교수가 후임 책임자가 되어 학교전체에서의 한국학 연구를 총괄하고 있다(Duncan 2003).

현재 A 대학은 미국 내에서 한국학 관련 과목의 수강생 숫자에 있어서 가장 많다고 알려져 있는데 3,300명으로 총학생수 35,000명의 거의 10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한인 1.5세대와 2세대 코리언-아메리칸 학생들을 위한 언어교육프로그램을 소개하였고 더 나아가 미국 내에서는 처음으로 '한국 언어와 문화'라는 전공으로 학부 전공을 특화하여 미국내 한

인 학생을 교육하기 시작하였다. 현재 이 대학은 한국학 분야에 '한국어와 문화', '동아시아와 한국' 전공으로 2개 학부 전공을 소개하고 있다. 한국 관련 학부과정의 코스는 현재 68개 이고, 이 과정에 대한 학부생의 등록자 수는 1,550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CKS 2007a)(표 1 참조).

대학원 과정에서도 한국학 분야에 석사학위(MA)와 박사학위가 제공되는데 주로 역사, 문학, 언어학, 종교학, 예술사, 풍속과 사회과학 분야에 집중하였다. 대학원생 전공별 수와 대학원에서 제공하는 과목은 <표 2>, <표 3>과 같다.

2007년 현재 30명의 학부 학생이 한국학을 주전공으로 선택하였고, 50명의 대학원 학생들이 한국학의 여러 분야에서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이 대학 한국학 박사과정의 초기 세대들은 졸업 후 미국내 주요 대학에서 교수 및 연구직으로 자리를 잡고 있으며, 미국 내외에서도 국제적인 한국학 분야의 리더로서 자리매김을 해나가고 있다.

<표 1> 한국관련 주제별 학부 강좌: 총 68개

주제	강좌수	주제	강좌수
언어/언어학	37	역사	10
문학	4	종교	3
예술사	5	풍속	2
지리	1	고고인류학	1
음악	3	기타 문화	2

<표 2> 전공별 한국학 분야 대학원생: 총 50명

전공	학생 수	전공	학생 수
언어/언어학	6	문학	10
역사	17	종교	3
예술사	2	사회학	1
정치학	2	영화	2
고고인류학	1	기타	6

〈표 3〉 한국학 관련 대학원 과목 수

주제	과목 수	주제	과목 수
언어/언어학	8	역사	5
문학	4	예술사	5
종교	2	음악	1
지리	1	기타	2

이 대학의 한국학 관련 교수들은 정기적으로 40개 과목(전통역사와 현대사, 문학, 예술사, 종교, 현대 사회학, 사회복지 등 분야 포함) 이상을 가르치고 있으며, 2,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매년 한국 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있다. A 대학의 한국학 관련 교수진을 다른 대학과 비교해보면 〈표 4〉와 같다.

한국학센터와 연계한 ‘동아시아 언어 및 문화학과’는 한국어와 관련하여 전반적인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는데 현대 한국어 문헌과 전통문헌에 대한 훈련 프로그램과 전통 한문(한자 포함된 한국어)으로 기술된 역사 문헌에 관한 학습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의 고전문학과 언어를 정규 교과과정에서 제공하는 미국내 유일한 대학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한국학센터의 교육적 사명에 따르면 센터는 미국 학자 커뮤니티와 미국시민, 한국 교포들에게도 한국 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연구 학습하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CKS 2007b).

3. A 대학 도서관의 한국학 장서

3.1 동아시아 도서관의 역사

1948년 동양어학과와 학과장(현재 아시아언어 및 문화학과)이던 루돌프 교수가 풀부라이트 재단 지원으로 고고학 연구를 위해 중국 본토 여행을 하게 되는데 개인적 목적으로 A 대학에서의 중국학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도서를 다량 구입하게 되었다. 중국 공산당의 본격적인 등장으로 인하여 현지에서 더 이상 머무를 수 없었던 루돌프교수는 베이징과 청도 지방의 서점을 통해 참고도서, 백과사전, ‘선집’으로 알려진 대규모 장서를 모으게 되었는데, 이 장서들은 거의 목판본으로 찍힌 원본들이었다.

미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일본에 들려 자료를 더 구입하게 되었는데 이 여행을 통해서 1만권 이상 장서를 구축하였으며, 지금의 학부 도서관 건물의 지하실에 아시아 도서관을 설치하는

〈표 4〉 북미 주요 대학 한국학분야 정규 교수진 비교

대학명	교수 수	대학명	교수 수
A 대학	12	Harvard	3
Columbia	2	Chicago	2
Stanford	2	UC Berkeley	2
USC	3	UBC	1

계기가 되었다. 이때 모은 장서가 아시아 도서관의 기본 참고장서로 제공되고 학생과 교직원들에게는 문화적 요양소 역할을 하게 되었다.

1971년 현재의 대학원생용인 연구도서관(학부생 전용도서관은 캠퍼스 중심부에 따로 위치되어 운영 중) 건물이 신축되었을 때, 동아시아 도서관은 현재의 위치인 2층으로 이사하게 되었다. 1981년 루돌프 아시아 도서관은 공식적으로 중국학 학자인 루돌프 교수의 업적과 노력을 기리기 위하여 그의 이름을 딴 도서관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다. 1990년 도서관 명칭은 다시 동아시아 도서관으로 변경되어 중국, 일본, 한국 자료를 모두 포함시키는 명칭으로 다시 바뀌게 되었다.

2007년 11월 1일 현재 동아시아 도서관 자료는 대략 542,705 책으로 이 중 290,804 책은 중국어자료이며, 78,475 책은 일본어 자료, 한국어 자료는 47,692 책, 그리고 마이크로 자료 20,707 건, CD-ROM 및 비책자 자료가 5,027 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아시아 도서관은 총 3,023 종의 연속간행물을 매년 입수하는데, 1,957 건은 중국학 분야, 856 건은 일본학, 210 건은 한국학 분야로 나누어진다.

동아시아 도서관 장서는 중국 고고학 분야, 종교(특히 불교), 풍속, 근대 역사, 중국과 일본의 고전 문학과 일본·중국의 미술 분야에 특히 강점을 갖는다. 최근 몇 년동안에 중국과 일본학 관련 캘리포니아 지역의 자료는 별도의 노력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국학 장서의 경우도 문학, 역사, 종교 분야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북미대학 도서관에서 대체로 동아시아 자료가 있는 도서관의 경우 장서의 수집은 중국학,

일본학 관련 장서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학 자료를 소장한 도서관과 자료의 수는 중국학이나 일본학에 비해 절대적인 열세를 보이고 있다(〈표 5〉에 의하면 한국학 자료는 중국학에 비해 대략 8.7분의 1, 일본학에 비해 5분의 1 정도 수준으로서 상대적으로 장서 수가 꽤 작음을 알 수 있다). 1만권 이상의 한국학 자료를 소장한 대학은 15개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서도 예일대학, 프린스턴 대학, 인디애나 주립대 같은 전통 있는 대학에서 새로 입수하는 자료의 수는 연간 500 종을 넘지 않기 때문에 기증 형식의 자료입수를 제외하면 한국학 관련자료 확충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볼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미국 전체적으로 볼 때, 이들 학교를 제외하고 상위 10여 개 학교에서는 한국학자료의 증가 비율이 근래에는 중국학이나 일본학 자료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소식은 반가운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동안 현장에서 꾸준히 노력해 온 한국학전문사서들의 노력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겠다(최형근 2005). 다음 〈표 5〉에서와 같이 1994년부터 2004년 까지의 한국, 중국, 일본학 자료의 증가율을 보면 각각 77%, 32%, 27%로 나타나 한국이 현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CEAL Statistics Committee 2006).

3.2 한국학 장서의 역사

A 대학 동양학 도서관의 한국어 자료 구성은 미국내 동아시아 도서관 역사에 비추어 비교적 빠른 시기인 1962년에 시작되었다. 미국내 한국학 도서관의 시작은 하버드 대학의 하버드-엘칭 도서관에서 1951년 시작되었고 이어서 캘리

〈표 5〉 CEAL 회원 소장 장서수 연대별 비교

년 도	소장자료의 총수		
	한국학 자료	중국학자료	일본학자료
1994	581,427	6,596,403	4,068,060
1995	645,492	6,731,987	4,296,079
1996	674,177	6,809,232	4,252,583
1997	709,329	7,130,308	4,333,817
1998	722,306	7,242,305	4,407,009
1999	734,753	7,270,484	4,526,039
2000	814,301	7,493,167	4,567,819
2001	822,448	7,644,120	4,583,206
2002	905,834	7,696,174	4,734,227
2003	993,695	8,400,702	5,053,610
2004	1,026,876	8,731,888	5,172,854
1994-2004 증가율	77%	32%	27%

포니아 버클리대학에서 동아시아 도서관이 구성되었으며, 1961년 미시건 대학이 그 뒤를 이어 설립되었다(윤충남 2004: Kim 1984).

이 대학의 한국어자료 구축은 1956년 동양학 도서관이 공식적으로 A 대학도서관 시스템에서 분리된 분관 도서관으로 설치된 지 6년 만에 진행된 성과였다. 현재의 동아시아도서관은 원래 동아시아학 교육과 연구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하여 1948년 저명한 중국학자이던 루돌프 교수에 의해 설치되었다. 현재 동아시아 도서관은 한국, 중국, 일본어 자료를 구입 정리하여 이용자에게 서비스하고 있다. 또한 담당사서들은 참고서비스와 이용자 지도를 통해 자료의 접근과 활용을 극대화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한국학 장서는 2007년 11월 1일 현재 동아시아 장서 중에서 약 45,429책을 보유하고 있고, 매년 203종의 연속간행물을 입수하고 있다. 한국학장서는 1985년 이후 부서는 역사, 문학, 기독교, 불교, 풍속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장서개

발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학 장서는 한국학 교과목 프로그램을 위한 강의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다학제간 연구를 위해서도 제공된다. 한국학 장서는 중요한 한국어 참고용 데이터베이스, 신문 보존 자료, 전문 데이터베이스등을 구축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어 전자책 서비스가 새로 도입 소개 되었다. 공간 부족 문제로 인해 최근 주목받고 있는 한국 필름과 드라마 등을 포함한 많은 자료들이 동아시아 도서관 자료에 속하지만 현재의 건물에 소장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East Asian Library 2007).

30% 이상의 장서가 캠퍼스내 다른 곳에 위치한 교내 보존도서관(별도로 설치된 독립 건물을 지어 다른 지역의 도서관과 공동운영되는 〈SRLF: Southern Regional Library Facility〉를 말함)에 비치 보관 중에 있는데, 보존도서관에 있는 도서는 이용자의 요청에 의해서 폐가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이용 상 제약을 상당히 받고 있는 실정이다. A 대학의 한국학 장서는 북미지역 한국학 장서의 자원 공유

를 활성화하고 장서개발을 분담해서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1994년 북미지역 한국학 장서 컨소시엄(Korean Collections Consortium of North America)의 회원이 되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도서관 이용자들은 무료로 도서관 간 상호대차 서비스를 통하여 교육과 연구를

위하여 한국 학술 자료를 입수 할 수 있게 되었다. 외교통상부 산하기관인 한국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에 의해 지원되는 이 사업에 각 대학별로 할당된 주제 분야는 다음 <표 6>과 같다(KCCNA 2007).

<표 6> 북미 대학 한국학 장서 주제별 분담 수서 현황

대 학 명	수집 영역
Univ of British Columbia	경기도 관련 출판물 종교(불교와 기독교 제외) 법률제도 역사, 1392-1864 한의학 섬유 및 의상 캐나다 서부에서 발간된 한국관련 출판물
UC, Berkeley	강원도 관련 출판물 한국 현대사, 1945년 이후 교통 정보기술 공공재정 러시아 중아시아 관련 한국 출판물 샌프란시스코지역 한국관련 출판물
UC, Los Angeles	고고인류학 불교 기독교 풍속 문헌정보학 한국 고어 분야 남아메리카와 한국 관련 출판물 캘리포니아 남동지역 한국관련 출판물
Univ. of Chicago	환경학 국제관계 산업(자동차산업 포함) 복지학 정당 근대 이전 한국 철학 전통 창작물 중국 및 대만에서 출간된 한국관련 출판물
Columbia Univ	서울관련 출판물 한국근대사, 1864-1945 미술(회화, 조각, 사진)

	<p>공연예술(무용, 뮤지컬, 무대공연) 대중문화 서예 교육 심리학 뉴욕지역에서 출간된 한국관련 출판물</p>
Harvard Univ	<p>충청도 관련 출판물 비즈니스 분야 법 정부-사법부 족보학 고전시 뉴잉글랜드 지역 출간 한국관련 출판물</p>
Univ of Hawaii, Manoa	<p>제주도 관련 출판물 건축 도시계획 현대 사회 전통 음악 한국 고증세사, -1392년까지 민족주의 공공 보건 유럽 출간 한국관련 출판물 하와이 출간 한국관련 출판물</p>
Univ of Michigan	<p>자동차 산업 사료 편찬 민주화 과정 통일 문제(1945년 이후) 노동 관계 일본에서 출간된 한국관련 출판물 디트로이트와 중서부지역에서 출간된 한국관련 출판물</p>
USC	<p>전라도 관련 출판물 시네마 커뮤니케이션과 매스미디어 광고 저널리즘 현대언어 및 어학 행정 지리(지도 및 지도책 포함) 남가주 지역에서 출간된 한국관련 출판물</p>
Standford Univ	<p>현대 경제 관련 상업 비공공 재정 정부 - 행정부 전통 수필(저작집) 오세아니아 및 아프리카에서 출간된 한국출판물 북미 로키산맥지역(콜로라도, 유타, 아리조나)에서 출간된 한국관련 출판물</p>

Univ of Toronto	현대 소설 및 수필 지방 정부 군사학 및 군사역사 문화 인류학(고고학과 민속 제외) 동부캐나다지역에서 출간된 한국관련 출판물 전반적으로 캐나다에서 출간될 한국출판물
Univ of Washington	경상도 지역 출판물 현대 시 아동 문학 성과 가족관계 장식미술 여행 남부 및 남동아시아에서 출간된 한국 출판물 몬태나, 아이다호, 와이오밍 포함 태평양 북서연안 지역 출간 한국관련 출판물

4. ACRL 표준 공식과 ARL 중간값 산출

4.1 ACRL(Association of College & Research Libraries) 표준 공식 적용

본 논문의 주된 연구 목적은 A 대학의 한국학 장서 현황과 규모에 대한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조사·분석하는 것이다. 대학 도서관용으로 적정성 평가를 위한 여러 가지 공식(기준)이 있는데 이러한 공식과 기준은 도서관 커뮤니티의 여러 이용자 그룹과 요구되는 정보 자원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하게 된다. 장서와 이용자 그룹(학부 대학원 교직원 등)에 근거한 ACRL 표준 공식을 적용하여 분석하게 된 이유는 이 표준이 이 분야 전문기관인 ACRL에 의해 표준이 평가되고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이 표준은 북미지역 등에서 대학도서관 평가 중에서도 “장서”를 중심으로 한 평가에 사용되고 있는 도구이다. ACRL

공식은 현재까지 Formula A, B, C가 평가 대상을 달리하여 소개되어 오고 있다. 공식 A는 도서관장서 평가용으로 여전히 사용되고 있으며, 공식 B는 도서관 사서, 공식 C는 도서관 공간과 시설 평가를 위해 각각 이용되고 있다 (Rahman 2005; ACRL 1995; Clouston 1995).

본 연구를 위하여 <공식 A>가 장서 평가용으로 적용되었다. ACRL 표준은 도서관 장서 평가에 모든 종류의 기록 정보를 포함시키고 있는데, 특히 한국학 장서의 규모가 대학의 한국학 연구와 교육 지원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이를 적용시키고자 하였다. 1995년 판 ACRL 표준에 따르면, 도서관에서 제공해야 하는 출판물의 분량은 <공식 A>에 따라 산출되어야 하는데, 전체 장서량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산출된다. 현재 한국학 센터의 교수진은 총 12명으로 6명의 한국관련 주제를 강의하는 교수와 6명의 사다리트랙(타과와 교류 가능한) 교수로 구성된다. 한국학 전공학생의 경우 2007년 가을 현재 전체 94명 중, 44명은 학부(전공 및 부전공), 50명은

대학원 과정을 이수하고 있다(표 7 참조).

〈공식 A〉에 따르면 기본 장서는 85,000 책이며, 전임 교수 당 장서는 100 책, 풀타임(전일제) 학생의 경우 학생 1인당 15책이 확보되어야 하며, 학부 과정에 350 책, 석사과정에 3000 책, 박사과정에 25,000 책의 장서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다. 공식에 따라 산출된 결과는 〈표 8〉과 같다.

2007년 현재 한국학 장서 수 45,429 책과 비교해보면, A 대학의 한국학 장서는 ACRL의 기준에서 뒤떨어져 있어서 국제적 표준에 맞추려면 좀더 향상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가 현재 한국학 장서가 미흡한 수준이라거나 기준 미달이란 의미로만 해석될 수는 없을 것이다. 현재 교내의 다른

도서관에 있는 한국 관련 서양어자료와 합산하면 97,193 책으로, 공식에 따라 산출된 115,520 책과 비교하면 84.13%에 해당되어, 한국학 장서는 'B 등급'으로 평가된다. 90% 이상이 A 등급으로 인정되므로 지속적인 장서 증대 정책을 펴면 머지않은 시간에 최상위 등급으로 평가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ACRL은 다음과 같이 도서관장서의 수준을 4가지로 나누어 등급화하였다. 한국학 관련 비책자 자료의 종수는 2006년 2월 현재, 마이크로폼 268 건, 오디오자료 13 건, 필름 및 비디오 자료 40 건, 그리고 구독 중인 연속간행물은 203 종으로 나타났다. 단행본 수와 함께 포함시켜 산출 값을 도출하였다.

〈표 7〉 교수 및 학생 수 현황: 2007

- 교수	총 12
한국학 전담	6
사다리트랙	6
- 타과 소속이며 부분적 참여(40%)	4
- 타과 소속이며 미참여	2
- 학생	총 94
학부생	44
대학원생	50

〈표 8〉 공식 A 와 한국학 장서 적용

구 분	공 식	적용 수	결과치
기본 장서	85,000	-	85,000
전일제 교수	100	6(100 %) 4(40%)	600 160
전일제 학생	15	94	1,410
학부 과정	350	1	350
석사 과정	3,000	1	3,000
박사 과정	25,000	1	25,000
* 공식에 따른 합계 :			115,520

- 1) A 등급 - 합산 값이 공식 값의 90% - 100%에 해당할 때
- 2) B 등급 - 합산 값이 공식 값의 75% - 89%에 해당할 때
- 3) C 등급 - 합산 값이 공식 값의 60% - 74%에 해당할 때
- 4) D 등급 - 합산 값이 공식 값의 50% - 59%에 해당할 때

결과에 따라 A 대학 장서를 평가해보는 방법도 대학도서관에서 사용되고 있다. 적용 방식은 단순하지만 비교 값의 결과를 객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게 사용 될 수 있다.

다음 <표 9>와 같이 A 대학의 한국어장서 확보 현황은 15개 대학 중에서 8위로 중간정도로 나타났다. ARL 비교값의 중앙값이 44,844 책 인데 A 대학 장서수가 44,665로 중앙값에 매우 근사한 수치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앞서서 <표 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교수 수나 학생 수를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상당히 적은 장서수를 보여주고 있다. A 대학의 최근 2년간 장서증가 비율은 4.4%로 나타났다. 기준 연도 2006년을 기준으로 2005년과 비교하면 1,895 책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4.2 ARL(Association for Research Libraries) 기준치 산출

유사한 교육기관 간에 장서량을 상호 비교하는 것도 적정성 평가 측정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Rahman 2005; Kao & Lin 2000). 따라서 미국에서 한국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15개 대학의 장서량에 대해 중앙값을 찾아보고 그

<표 9> ARL 비교값: 유사기관과 비교

순 위	대 학 명	장서수
1	Harvard-Yenching	128,906
2	Washington	86,666
3	California, Berkeley	75,652
4	Columbia	68,655
5	Hawaii, Manoa	60,581
6	Chicago	52,329
7	USC	49,864
8	A 대학	44,665
9	Michigan	21,515
10	Princeton	17,332
11	Indiana	17,332
12	Illinois-Urbana	15,497
13	California, Irvine	12,053
14	Stanford	11,250
15	Yale	10,358
중앙값(Median)		44,844

5. 결론

본 논문은 A 대학의 한국학 장서가 1962년 구축된 이래 최근 2007년 까지의 장서구성 실태에 대한 실질적인 현장 평가이다. 지난 40-50년간 동안 이 대학 장서는 꾸준히 증가·발전되어 교수 학생 등 대학 구성원과 이 지역 사회의 구성원에게도 제공되어 봉사해 왔다. ACRL 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한국어 장서는 한국 관련 교육 과정과 이 지역의 한국인 커뮤니티를 지원하기 위해 장서를 꾸준히 증가시켜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볼 수 있다. ACRL 공식에 따라 장서 평가를 할 경우, 동아시아 도서관의 영어자료를 포함시킨다면 한국학 장서가 B 등급 수준으로 평가되고, 또한 ARL 비교치 결과에서 A 대학 한국학 장서는 15개 대학 중 중간 정도에 그치고 있음이 밝혀졌다. 특히 같은 대학 내에서도 중국학이나 일본학에 비해 장서 구성이 크게 뒤떨어져 있으며, 교수나 학생 그리고 지역사회의 규모와 관심에 비해서는 비교적 적은 장서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학 장서의 구축은 주로 대학의 단기적 지원과 한국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 같은 한국기관의 지원에 의존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중국학 및 일본학 자료의 경우 대학도서관의 정기적 지원뿐만 아니라 추가로 본국 등의 여러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을 비교해 보면, 한국학 자료 확충을 위해 앞으로 보다 영구적인 예산지원 방안이 절실한 형편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북미 지역 전체적으로 한국학 장서 지원 방안이 범정부적으로나, 지역 사회적으로나 재검토되어야 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A 대학의 한국학 자료의 확충은 교내의 교직원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있는 교포나 시민 등에게도 긴요한 것으로 한국의 지원기관이나 해당 지역의 한인 사회로부터 지원도 절실한 것으로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났다.

<알림>

본 연구를 위해 2007년도 현지에서 편의 제공을 아끼지 않은 A 대학 도서관장과 동아시아 도서관장께 심심한 감사를 표하고자 한다. 또한 각종 통계자료와 조언을 주신 동 대학의 한국학센터 교직원 그리고 캘리포니아 지역 내 여러 관중에서 열정적으로 근무하는 대학 및 공공도서관 한인 사서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송영희 외. 2008. 『디지털시대의 장서관리』. 개정판. 서울: 도서관협회.
윤충남. 2004. 『하바드 엔칭 한국관 자료 연구』. 서울: 경인문화사.

최형근. 2005. 북미 대학도서관의 한국학장서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 『도서관 문화』, 46(12): 52-58.
ACRL Board & ALA Standards Committee,

1995. "Standards for college libraries 1995 edition." *C&RL NEWS*, April 1995. 12.
- Baker, S. L. & F. W. Lancaster. 1991. *The Measurement and evaluation of library services*. 2nd. Arlington, VA: Information Resources.
- CEAL Statistics Committee, 2005-06. "Council on East Asian Libraries Statistics 2005-2006 for North American Institutions." [online]. [cited 2007.10.5].
 <<http://www.lib.ku.edu/ceal/>>.
- Center for Korean Studies, 2007a. "Mission of UCLA's Korean Studies Program." [online]. [cited 2007.10.8].
 <<http://www.international.ucla.edu/korea/mission.asp>>.
- Center for Korean Studies, 2007b. "Overview of UCLA's Korean Studies Program." [online]. [cited 2007.10.8].
 <<http://www.international.ucla.edu/korea/>>.
- Clouston, John. 1995. "How much is enough: establishing a corridor of adequacy in library acquisitions." *Collection Management*, 19(3/4). 9.
- Duncan, John. 2003. "Summary report on the UCLA Korean Studies Program." [online]. [cited 2007.10.5].
 <www.kf.or.kr>.
- East Asian Library, 2007. "Richard C. Rudolph East Asian Library." [online]. [cited 2007.11.2].
 <<http://www2.library.ucla.edu/libraries/EastAsian/6469.cfm>>.
- Kao Chiang & Y-C Lin. 2000. "Empirical standards for university libraries in Taiwan." *Libri*, 51. 17-26.
- KCCNA. 2007. "Korean Collections Consortium of North America: cooperative collection development program of Korean studies resources supported by the Korea Foundation." [online]. [cited 2008. 10.7].
 <<http://www.lib.berkeley.edu/KConsort/about.html>>.
- Kim, Ik-Sam. 1984. "The Korean collection at the UCLA Oriental Library." *Korean and Korean-American Studies Bulletin*, 1(1), Fall 1984.
- Rahman, M. Z. 2005. "The library of the ISTAC: an evaluation of a decade of the collection development." *Library Reviews*, 54(1): 21-27.
- The Korean Collection Consortium of North America, 2007. "Cooperative collection development program for Korean Studies resources supported by the Korea Foundation." [online]. [cited 2007.11.2].
 <<http://www.lib.berkeley.edu/KConsort/about.html>>.